

우리의 월간 소식지. 발행일 94년 3월(제2호)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11	9

# 친구사이

(구 : 초동회)



(사진은 관련기사와 무관함)

**프랑스 국영 TV “한국의 가려진 목소리”**  
**다큐멘터리에 친구사이가...**

관련기사 p17에...



“친구사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국내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동성애 남성들의 모임으로서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친목도모
- 청소년 고민상담
- 에이즈 예방 및 퇴치운동
- 동성애자 인권보호
- 기 타

## 차 례

- 4 왜? 동성애인가
- 5 AIDS란?
- 6~ 7 만화 종로스토리
- 9 독자마당 시
- 10 바꿔봅시다
- 11 유명한 곳은 WHY?
- 13 화제의 영화감상문
- 14~15 우리는 한가족 “알고 지냅시다”
- 17 한국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를 외국TV에 소개
- 18~19 미팅/펜팔
- 20 대한민국과 세계의 동성애 현황
- 22 내가 호모로써...
- 23 편집후기



# HENRY GLEITMAN의 저서를 근거로 한 국내 교수들의 공동연구

## “동성애”

동성애는 병인가 특이한 생활양식인가?

동성애는 그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병인가? 아니면 단지 현 시대 현 문화권에서 우연히 비난받고 있을 뿐인 한 특이한 형태의 성적 표현인가? 인간의 성생활영역에서 이 문제보다 더 격렬하게 논란이 되어 온 문제는 거의 없다.

한정신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동성애는 병적이며, 그 원인은 이성에 대한 공포로 무능해짐, 그리고 “삶의 자기 성미에 안 맞음”에 있다(Bieber, 1965). 이 견해는 그 일차적 증거를 정신병 치료를 받은 106명의 남자 동성애자에 관한 유명한 연구에 두고 있다(Bieber 등, 1962). 그 동성애자들을 맡아 치료한 치료자들은 그 동성애자들이 비교집단인 이성애 취향의 환자들에 비해 더 심하게 혼란되어 있었고 불행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너 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이 연구에서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 동성애자들 표집에 관한 것이다. 즉, 정신의학상의 치료를 위한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표집의 대표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동성애자 전집에 비해 더 혼란되어 있을 것은 거의 확실하므로, 한번도 정신과 의사를 찾지 않은 다수의 동성애자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반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연구자들은 연령, 교육수준 및 종교가 동일한, 그리고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비교하였다.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간의 개인적 적응상의 차이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그러한 차이를 전혀 발견해 낼 수 없었다(Hooker, 1957; Thompson, McCandless 및 Strickland, 1971). 다른 연구자들은 동성애자(특히 남성 동성애자)가 자신감 결여, 자존심이 낮아 괴로와 함, 자신을 희생시키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듦의 측면들에서 약간 그 경향성이 강함을 발견했다(Saghir와 Robins, 1973).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들이 버림받은 소수집단이라는 사실로써 아마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혐오와 방어적 자기 黻化는 어떤 박해받는 소집단에서든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것이다(Hooker, 1965).

아무튼,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집단으로서의 동성애자들이 한 집단으로서의 이성애자들보다 더 행복하거나 더 잘 적응을 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붙으면, 불행감을 느끼고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동성애 자체가 반드시 성격상의 혼란과 신경증을 의미하는 지의 여부이다. 그 답은 ‘아니다’ 인 것 같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하나의 심리적 장애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진다. 1974년에 이 견해가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적 입장이 되었다. “동성애 그 자체를 반드시 정신적 장애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학회의 투표결과였다(Marmor, 1975, p.1,510).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성적 지향을 바꾸기를 원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치료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전적인 동성애자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결코 쉽지 않다. Freud 자신은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나중에 정신분석가들은 보다 낙관적이 되었으나, 그들도 말은 3분의 1 이상이 완쾌되었다고 보고한 예는 희귀하다.

성적 지향은—이성애와 동성애 모두—상당히 변화되기 힘든 조건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다. 동성애는 병도 아니고 성격적 혼란도 아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 AIDS I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약자로서 혈액, 질 분비물, 정액 등에 존재하는 HIV(Human Immune Deficiency Virus)가 수혈이나, 성교를 통해 인간의 몸에 침입하여 감염에 저항하는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는 질병으로 3~6개월 지나야 혈청검사로써 감염여부를 알 수 있으며, 5년~10년이 지나서 증세가 나타나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록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건강인과 전혀 구별할 수는 없으나, 감염자는 건강인에게 HIV를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DS 환자는 HIV 자체로 사망하는 것보다는 기회감염(폐렴, 진균감염 등) 혹은 암(카포시육종, 임파종) 등의 발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감염경로

1. 에이즈에 감염된 이성 or 동성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예방법-매춘부를 포함 여러 사람과의 성접촉을 절대로 피함  
-콘돔을 꼭 사용합시다  
-항문성교를 절대로 하지 맙시다
2. 에이즈에 감염된 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그러한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 제제 또는 그들이 기증한 장기의 이식 등에 의해서
3.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태아에게

## ■ 어떤사람이 AIDS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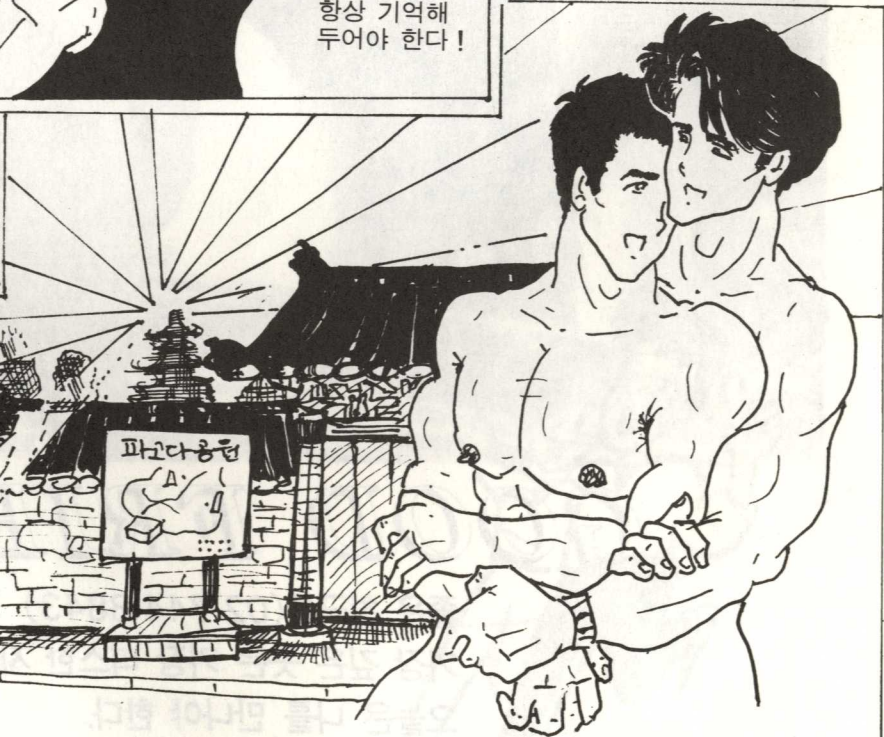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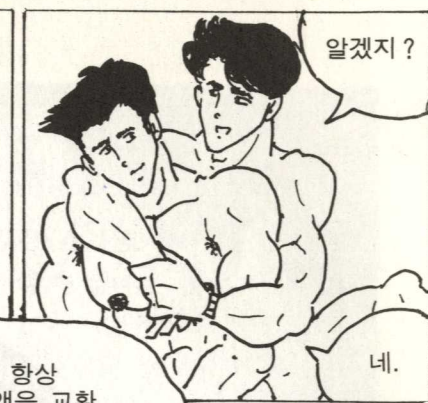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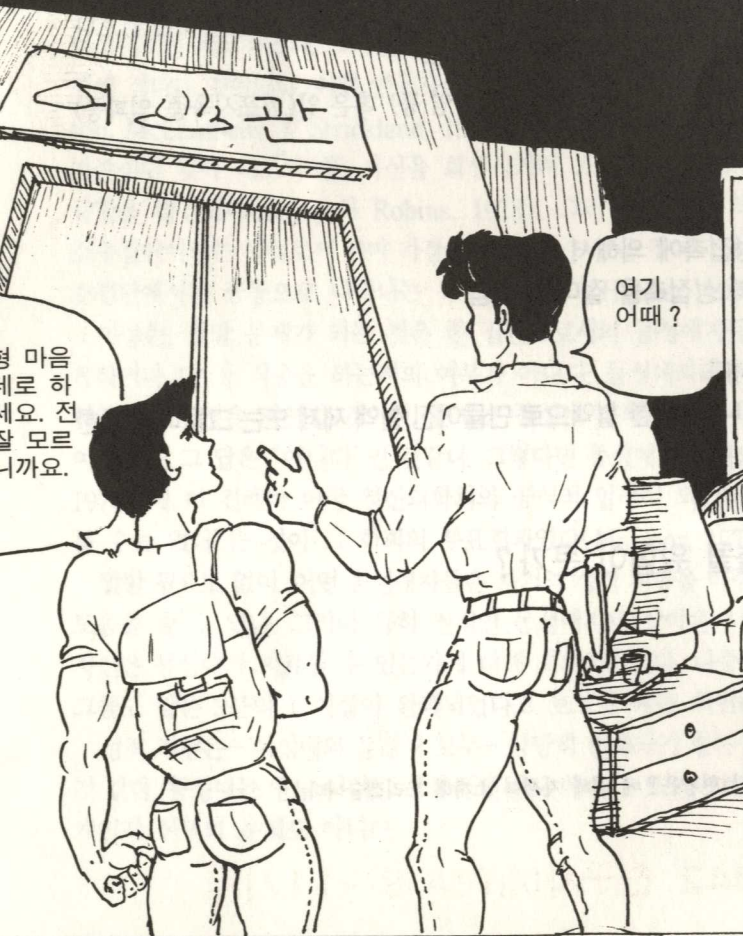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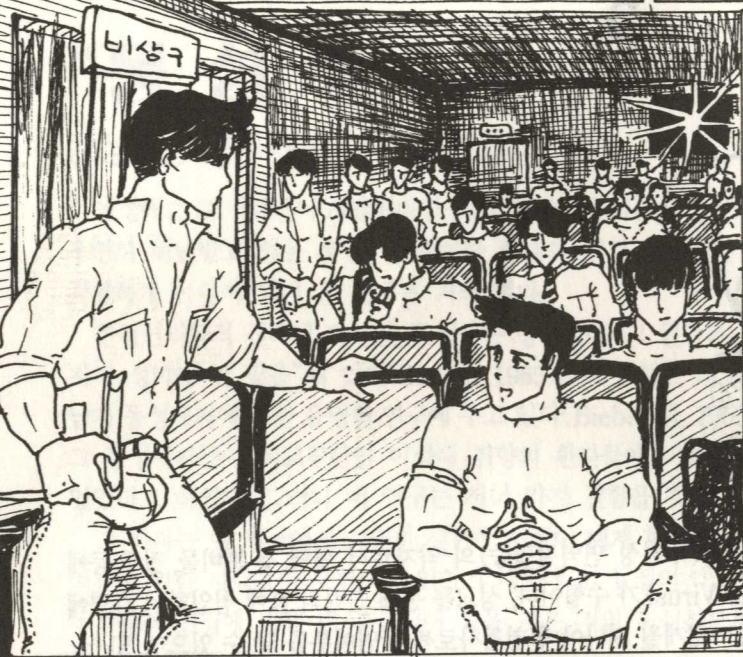
1. 여러사람과 성접촉을 갖는 자
2. 남성 동성 연애자
3. 마약(정맥주사) 공동 사용자

다음호에 에이즈 증상과 현재 치료, 예방 백신의 개발 현황은? 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종로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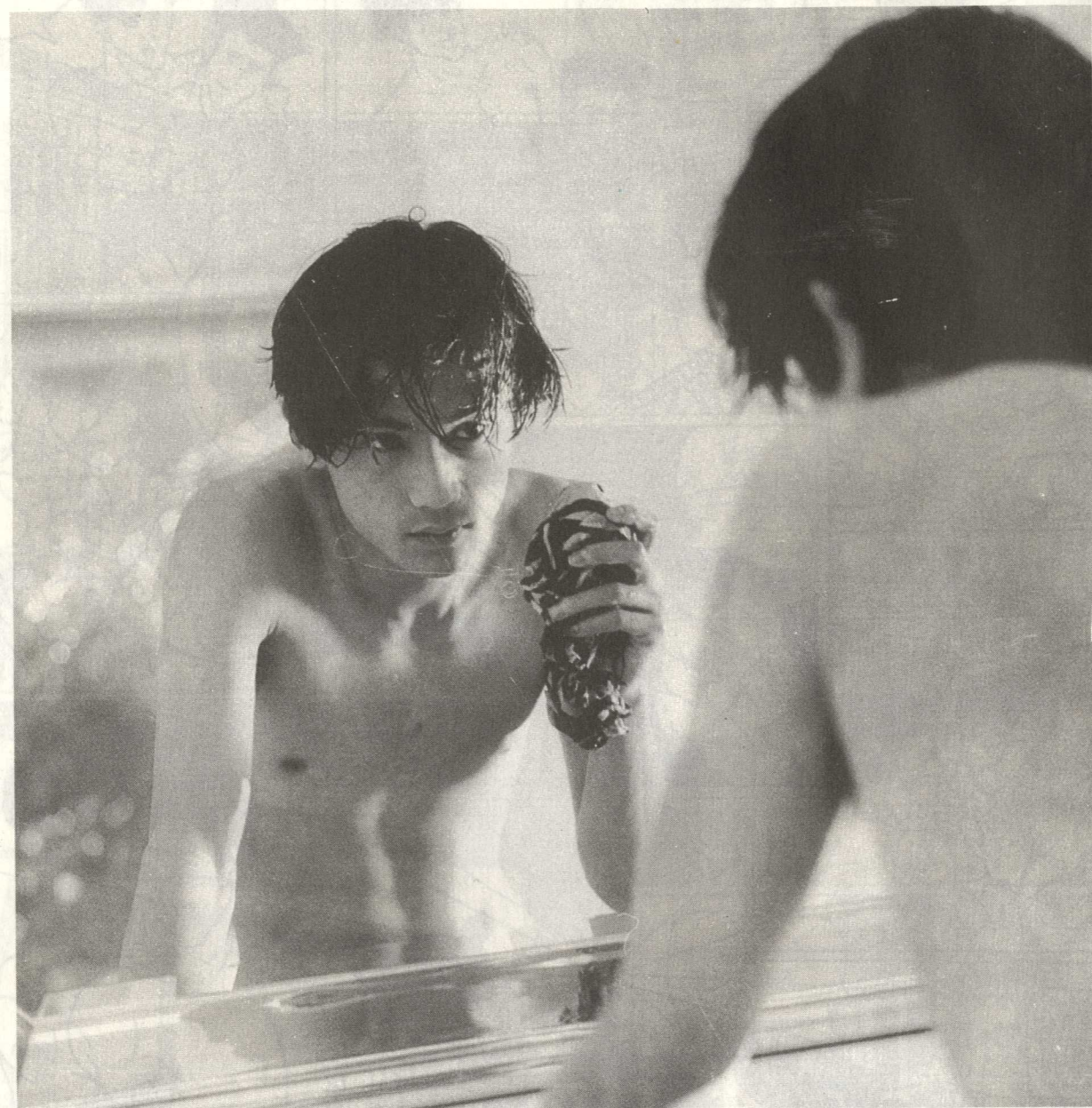
제1화 : P싸롱에서 만난 사람



AIDS는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진 신의 재앙도 또 동성애자들이 마땅히 치뤄야만 하는 사회의 형벌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동성애자들에게만 AIDS가 걸린다"는 사회의 편견이지, 우리들의 성경향이 아닙니다. 우리모두 안전한 AIDS 정보를 실행하여, 우리 스스로 동성애자들 사이의 AIDS전파를 예방합시다!

TEL : 02-601-7942 친구사이 (PM 8~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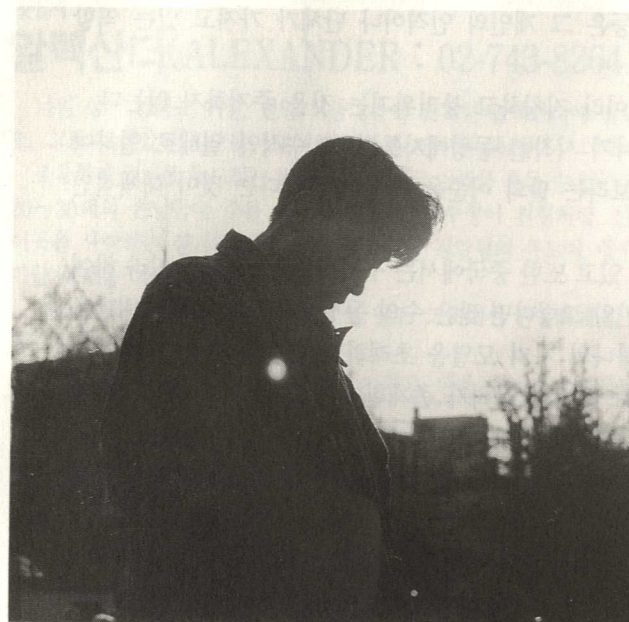


# GOOD FRIEND

좋은 친구들(02-744-8843)  
가장 깊은 곳은 가장 따스한 자리  
오늘은 나를 만나야 한다.  
내가 있는 곳!

## 독자마당

### 숨은 숨대로



나는 인생을 PACKAGE로 산다.  
나는 내숨을 어쩔 수 없다.  
이제 저 숨은 저 대로 살 것이다.  
저대로 숨 쉬고 숨은

숨대로 살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숨을 PACKAGE로 들이 마시고  
숨은 숨대로 저대로 내뿜고  
산다.

### 변태들의 아침여관

어리고 잘 생기고 건강한 너를 난 예쁘하지  
넌 날 웃기는 놈이라 생각할거야.  
그렇듯하게 차려입고 짐장을 빼지만  
너의 허벅지에 올린 떨리는 나의 손길 만큼 웃기겠지  
파리한 입술을 맞추며  
...나도 한때는 너만큼이나 고을 때가 있었다면  
넌 늙은 포주의 낫두리처럼 참을성있게 들어 주기도 하지  
그리고 커피 자판기처럼 빨리 뽑아주고  
내 손아귀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네가 흘린 그 한방울  
내 가슴에 꽃잎으로 핀다면 넌 진짜 웃을까?

혼자서 샤워하는 창너머로 내가 흘린 땀으로 첫 눈이 내렸네  
네가 먼저 나간  
골목길을 딱딱 딱딱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웅크린 젊음이 있네 떨고 있네  
밤고양이 같은 눈으로 날보네  
아저씨 빨리 지나가던지 날 데려 가던지  
내 앞으로 쳐들어 오는 바람을 막지 마세요  
여관의 천정 거울이 떨어지고  
파편으로 번지는 피와 울음  
내 목덜미로 킷볼로 번지는  
수증기! 수증기!  
너의 눈은 웃길이로 자꾸 멈추고  
넌 벌써 아침 여관의 문을 밀치며  
날 울리고 있네...





## 바뀌 봅시다

상식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미지가 타인에게 좋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지니고 있는 이름 혹은 지칭 등은 그 개인의 인격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등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동성애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갈이라 지칭하고 불리워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보갈의 어원에 대해서는 명동의 다방에서 처음 모이기 시작한 동성애자들이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성관계가 다중적으로 이루어지자 장난섞인 뜻으로 갈보라는 말의 어순을 바꾸어 불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므로 보갈이란 갈보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 옛말중에 말이 씨앗이요, 입이 보살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중국에서는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 하여 말이 가진 개인적, 사회적 책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많은 수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또 하나의 자기 모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갈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야 할 특별한 이유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모르되 이제는 자학증 환자가 아닌 바에야 다른 용어로 우리가 불리워지고, 불려야 할 때이다.

이름은 현실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미래에의 꿈과 바람을 담고 있는 법이다. 지금 여러분의 한자 이름을 풀어 보아도 그럴 것이다.

지금 이 란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자 강요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성애자들의 사시안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이때 구태여 그들의 잘못된 시각에 일조를 하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나마 필요하다고 여기에 감히 형제 여러분께 몇자 적어본다.

만-

여러분!  
“보갈”이라는 말 이외에 좋은 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일 적당한 말을 선정해서 바뀌봅시다.

## [유명한 곳은 WHY?]

첫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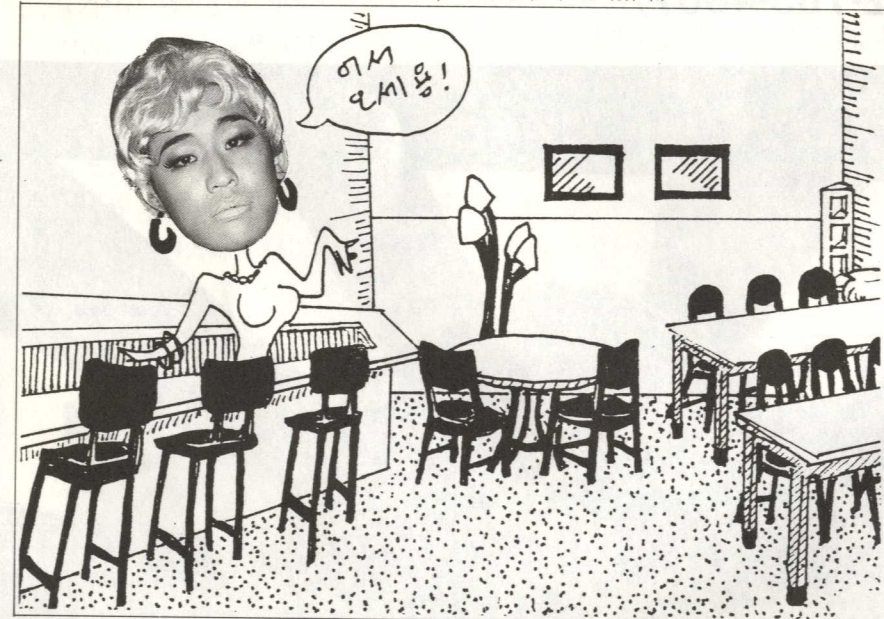
### 알렉산더(ALEXANDER : 02-743-8264)

낙원 상가 끝나는 지점, 천일 식품 3층에 위치한 알렉산더에 발길을 디디는 순간, 반갑게-마치 10여년 연락도 없이 또, 그토록 찾았던 친구를-맞이하는 듯한 명수형(대표)! 그의 다른 가족들...!

조용하게 컵가를 두드리는 발라드부터, 가끔 어깨를 흔들 수 있는 댄스곡까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분위기 때문인지, 20~30대의 손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명수형이 친형처럼,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해 주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이곳을 사랑하는 한가지 이유인 것 같다. 또, 경일형의 유모어, 동민형의 채치, 슈퍼모델 미 명성답게 특유의 재스처로 가끔 폭소를 자아내곤 한다.

가슴속에 꼭꼭 눌러 왔던 얘기 못 할 말도, 그곳에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곳이 소문의 끝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언제나 부킹을 신경써 주기 때문이라고, 다른 손님이 건네왔다.)



알렉에선 다른 곳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유의 메뉴를 선 보인다. 산적(2만원)  
최고기 & 순쌀떡 & 갖은 양념, 신선한 야채-우리 것이라 강조-로 정성껏 요리를 해선지 아니면, 그 무언가 있어서인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 바사삭 씹히는 야채의 상큼함이 사로 잡았다.  
언제라도, 미팅장소, 만남의 장소로 이 보다 나은 곳이 없는 것 같다.  
사실이 그렇고...  
오늘도, 힘들었죠?  
아무 생각없이 걸어 왔는데, 고개를 들어 보니 알렉이죠?  
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쌓인 스트레스 팍팍 푸시고 가세요.  
명수형이 있는 한...책임져 드릴 것입니다.  
고향집 아니, 친정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신세대들의 마음의 고향-알렉산더.....  
일반 카페에 가서 눈치보며, 수다(?) 못 떨죠?  
맘껏 끼 부려도, 누구 하나 뭐라 말 할 사람 없는 이 곳.  
왜? 커피맛이 틀려요? 언제부터 맛보고 드셨나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알렉산더!  
아직, 모르신다구요? 전화 주세요.(02-743-8264)로...



# FREE — TIME

THE FREEDOM OF OUR NEW GENERATION  
X세대의 젊은 남성들을 위한 CAFÉ/BAR  
서울 종로구 낙원동 파고다 공원 뒷 빌딩 3층  
(TEL : 02-763-4887)



## 화제의 영화 감상문

결혼 피로연을 보고나서...

미국으로 이주해 어느정도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대만의 웨이통은 미국청년 사이먼과 동거중에 있는 동성연애자이다.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야기의 발단은 대만에 계신 웨이통의 부모님이 며느리를 봐서 웨이통의 아이를 안아보게 해 달라는데서 시작된다. 웨이통은 고민에 빠진다. 효도냐, 동성애냐...? 어쩔 수 없던 웨이통과 사이먼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으려는 중국여자 메이친과 계약을 한다. 위장결혼으로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자고...

나중에 성대히 결혼피로연을 열고, 지내다가 웨이통이 신혼 첫 날밤 메이친과 관계를 맺은 것이 임신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 사실을 안 사이먼과 말다툼 하고 있는걸 아버지는 알았다. 그일로 아버지 쓰러지고, 급기야는 웨이통이 어머니께 모든 걸 고백한다. 어머니 아버지께는 절대 비밀로 하자고 웨이통과 약속한다. 그러나 아버지 내색하지 않았다. 부모는 그들의 거짓들을 말없이 받아드려, 보다 진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극중 주인공의 각자 맡은 역할에 너무도 진짜처럼 연기하던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웨이통이 결혼할 때 뒤에서 일 봐주던 사이먼의 그 표정선, 결혼 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못했던 그들의 애정표현을 발산할 때 너무 리얼하게 한 키스씬, 옷 벗다가 다리걸려 넘어지는 씬, 아버지의 인기척을 알고 후다닥 재빨리 옷을 입는 씬, 마지막 부모님이 공항에서 출국하며 웨이통 & 사이먼 & 메이친 & 관객 모두에게 손을 치켜 올리는 앤딩씬 과연 무얼 의미하는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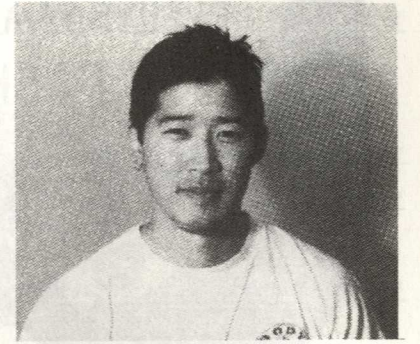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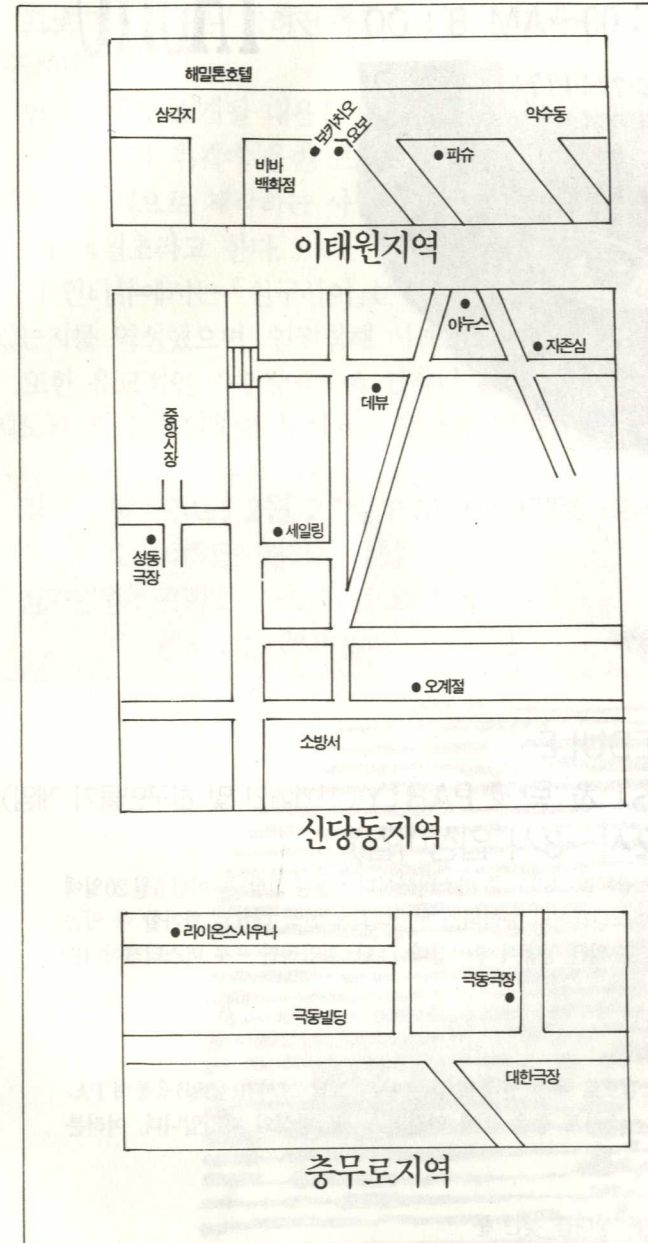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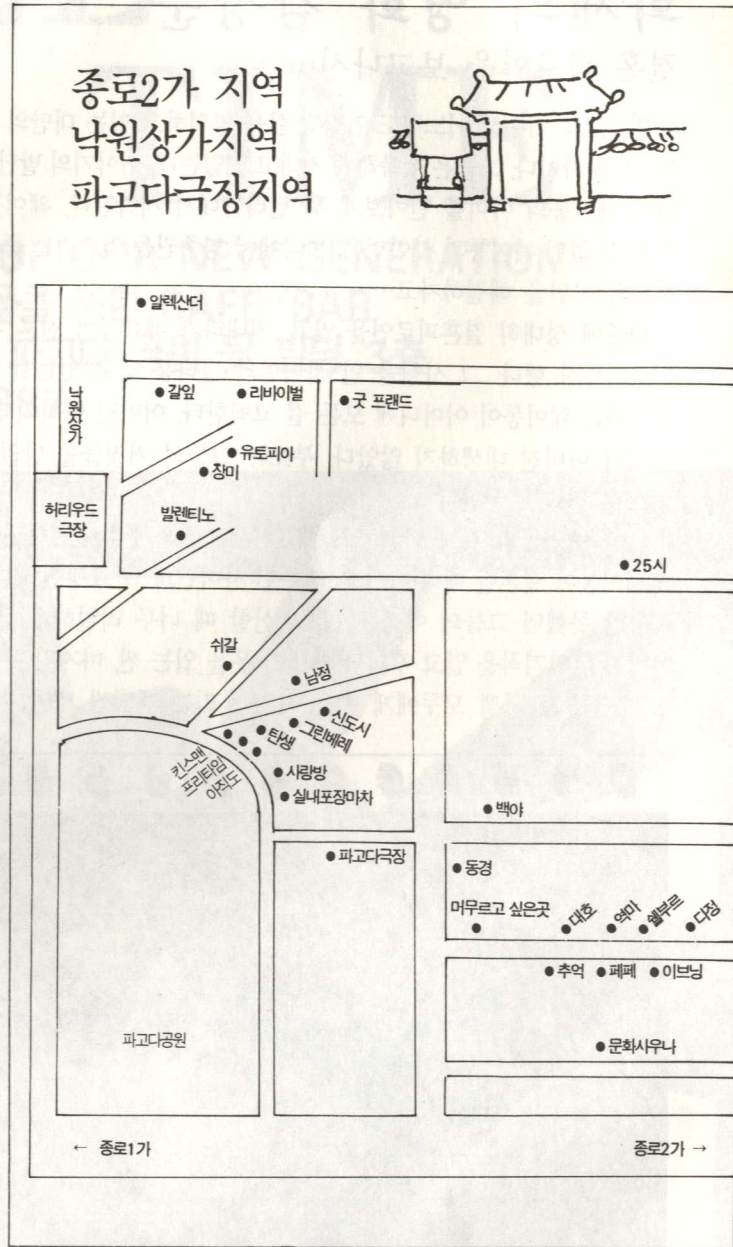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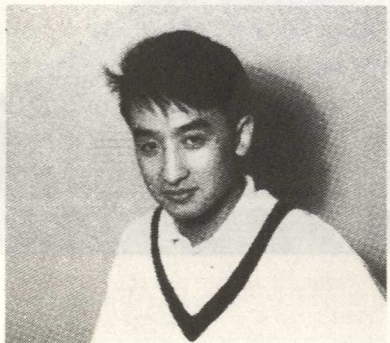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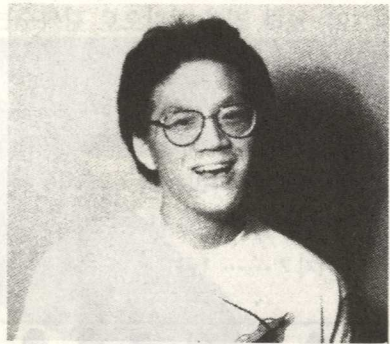


# 우리는 한가족-

(사진제공: 미국 샌프란시스코

# 알고 지냅시다!

GAPA 동양인 동성애남성단체)





THE · P · R · I · V · A · T · E · C L U B  
M E N ' S N I G H T A T

E V E R Y D A Y A M 3 : 0 0 ~ A M 8 : 0 0

I S T P A S H U 02-795-1774

PASHU



94, 3月 PASHU 파슈 SCHEDULE

MR.LADY 유니버스 CONTEST & 랑꼬 PARTY (자기애인 및 친구만들기 게임)  
3/13(日)~3/14(月) 새벽2시~3시 입장미감.

● 유니버스 콘테스트에 선발되는 미스터 레이디 그랑프리 그리고 준 미스터레이디스(2명 선발)는 이번 5월 20일에  
日本·수바우라(GOLD CLUB)에서 개최되는 미스터레이디 유니버스 선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출전 경비 등을 제공하며 상금(₩200,000) 또 많은 상품이 주어집니다.(단, 직업적인 프로 미스터레이디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파슈포스터 광고를 통해서...)

랑꼬(LANKO) PARTY

● 애인을 구하고 싶은 분 또는 친구나 Enjoy 느낌으로 우선 만나고 싶은 분은 그날 그시간(13일)을통해 PA-  
SHU에서 배부해 드리는 정해진 색깔의 헤어띠·스카프 등을 통해 연결되는 게임방식의 파티입니다. 여러분  
멤버들의 참여 기대바랍니다.

- 노랑(Yellow) : 애인을 구하고 싶은 분
- 빨강(Red) : 우선 Enjoy 기분으로 만나고 싶은 상대를 찾는 분
- 초록(Green) :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 기분으로 만나고 싶은 분
- 복합된 여러가지 칼라) : 관계없이 아무나 찾고 싶은 분

ITAEWON · M E N ' S N I G H T A T P A S H U TEL : 795-1774/5

OPEN! 안내

3월 하순 GRAND OPEN! 이반 세계 최고의 클럽이 곧 탄생됩니다.

CLUB COCONUT (클럽 코코넛의 장소는 "파슈"의 지하 2F에 자리할 것입니다) PM 8 : 30 OPEN

MULTISOUND MUSIC BAR GAMELOB Y · BOYS BAR · KARAOKE BAR=COCONUT CLUB

PRODUCED BY 파슈기획 PASHU CO.

한국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를 외국TV에서 소개!

친구사이는 2월 27일 프랑스TV 프로그램 제작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프로그램 내용은 「가려진 목소리」라는 것인데 각국의 소수집단의 참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한국편에서 소개될 내용은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에 관한 것이다.

친구사이가 취재에 응한 프랑스의 프로듀서(Francine Froment)는 교양 및 기획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이며 이 프로그램이 프랑스TV를 통하여 방영될 예정이며 그 시기는 4월초라고 한다.

이 인터뷰에서는 「친구사이」는 국내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역설했으며, 인권침해 사례도 소개하였다.

또한 유교적인 가부장제도에 입각한 관념의 피해자로서 많은 동성애자들의 개인적 행복이 제도와 관습에 의하여 무시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일 시 : 94년 2월 27일 P.M 10시부터 12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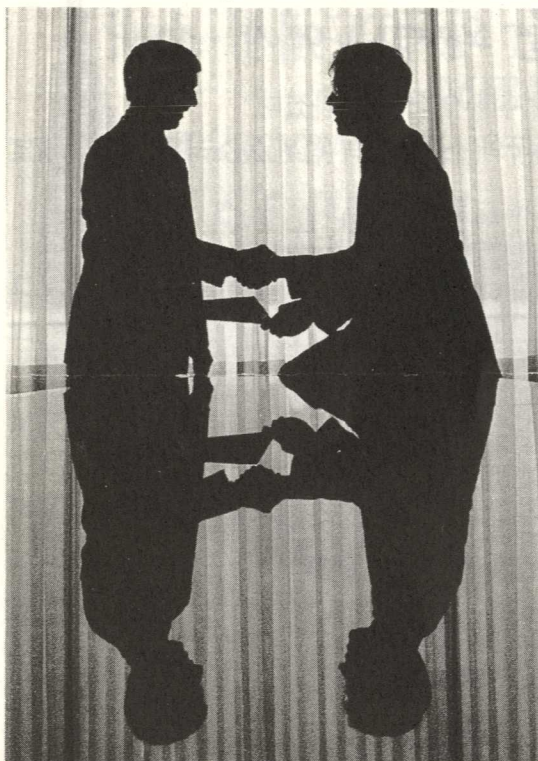
장 소 : 여의도 맨하탄 호텔

참가인원 : 프랑스 : 프로듀서 외 3명

한국 : 친구사이(4명)







### 미팅/펜팔 코너!

친구사이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입각해서, 다리역할을 합니다.

전화보다는, 우편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최대한 환상의 커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팅 or 펜팔을 꼭! 기재요망

구분 \ Type		A	B	C	D	E	F
1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	키	160이하	160이상	165이상	170이상	175이상	180이상
3	몸무게	~55kg	~60kg	~65kg	~70kg	~75kg	~90kg
4	체형	야윈타입	보통	뚱뚱함	근육질		
5	취미	여행	독서	영화	등산	볼링	운동
6	성격	내성	외향	우아	순종	리드형	
7	직업	학생	회사원	자유업	예술가	실업가	기타

예) 30대 K씨가 170cm, 65kg으로 보통 타입이라 한다. XX회사에 다니며, 영화감상을 특히 좋아하는답니다.

- 그가 원하는 상대는, 20대 초반의 180cm, 70kg로 건강한 대학생으로써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명랑한 사람을 찾습니다.

표기법

	K씨	?
1	C	B
2	D	F
3	C	D
4	B	D
5	C	C
6	C	B
7	B	A
기타		미팅or펜팔

### 신청인 상대방

가	Kim	?	나	Lee	?	다	Park	?
1	D	B	1	C	B	1	B	B
2	B	C	2	D	C	2	D	E
3	C	C	3	B	B	3	C	C
4	C	B	4	B	B	4	B	B
5			5	E	E	5	C	C.E
6	A		6	A	E	6	?	B
7		B	7	B	A	7	C	D
기타	취미 별다 른거 없음			주량이 센 편	센 사람이 면 좋겠다			첫인상이 중요함

라	Kang	?	마	Won	?	바	Jeong	?
1	B	D	1	B	B.C	1	C	B.C
2	B	B	2	D	C~E	2	D	C~D
3	A	B	3	C	B~C	3	C	B~C
4		B	4	A	B	4	B	B
5	A	A	5	컴퓨터	예술	5	음악감상	음악을 좋아하는분
6	A	B	6	B	B	6	E	A.D
7	A	C	7	A	확실한 직업	7	C	A.B
기타	문학과 학생임	펜팔부터 할 상대			귀공자 type 이 좋겠음			사귀면 오래 갈 수 있는분

[?] 에 본인이 해당되시면, [신청인] 란을 살펴 보시고 맘에 들면 저희 친구사이에 연락주세요. 이왕이면 우편으로 주십시오.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진호(35세)씨께서는 친구 or 연인을 찾고 계십니다. 김진호씨께 편지 또는 친구가 되주실분 연락주세요. 저희가 김진호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 곳: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우편번호 : 110-612)



## 대한민국 & 세계의 동성애 현황

동성애 인권은 결코, 외국의 해외 토픽 기사거리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웃나라 일본, 홍콩과 대만처럼 동성애 여성을 위한 단체 "SAPPHO"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발족되어 활동하여 온 것이 3년째 되어 왔습니다.

음성화 된 유흥업소 중심의 동성애 남성의 생활도 1993년 3월 12일 에이즈 감염 동성애자 김정민씨 수기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의 발간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표면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 1993년 12월 31일에는 7명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모여 동성애 자체내의 소식지 발간과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순간적인 성적 욕구충족 중심의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각 그룹간의 긴밀한 교류와 단체적인 소속감 형성에 힘을 기울이는 목적으로 협력하고자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세계의 동성애 현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 극동 아시아 국가

극동 아시아의 중화민국에서도 1994년을 기해 동양국가의 동성애 여성을 위한, 아시아레즈비언연합회(International Asian lesbian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1986년에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던 동성애 인권 단체인 "OCCUR"가 일본 역사상 최초로 동성애 인권 침해로 동경시 정부에 법적 소송을 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홍콩에서는 3년전 설립된 동성애 인권 단체인 "홍콩 10% 클럽"이 1997년 홍콩의 중공 반환을 대비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법으로, 확립시키고자 애쓰는 단체에 있습니다.

### 북미와 서유럽

1994년은 세계 동성애 인권 옹호 운동 추진에 있어서 의미가 큰 해입니다. 미국에서는 1969년 6월에 일어난 "스톤월 항거"의 25주년을 맞아 뉴욕시에서 94년 6월에 세계 동성애 역사상 최대규모의 동성애 인권관련단체의 연합 총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스톤월 항거"는 현대 동성애 인권옹호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고의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모욕적 언행이나 구타를 가하던 경찰에 대응하여 뉴욕시의 "스톤월"이라는 동성애 유흥업소 앞에서 벌어지게 된 미국 최초의 동성애 인권 항거였습니다.

미국은 이 "스톤월 항거"를 계기로 동성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인권 존중 문제로 취급하게 되었고, 심리학자와, 신경정신과 전문의들과의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동성애자를 정신질환 병명록에서 제거하고 정상인으로 대우하지는 결론을 공식화시키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993년 당선된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까지 동성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입장에서 심각히 논의하게 되었고, 94년 상반기엔 하와이주에서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들의 주정부 합법적 공식 결혼 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 인권 운동의 필요성

동성애 인권 운동의 필요성은 구태여 강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일입니다. "누군가가 앞장을 서리라" 기다린 것이 여기까지 왔지만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운명론에 치우쳐 우리의 고난을 미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 우리의 힘을 합치면, 언제까지나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퀸

# 스

# 맨



# KINSMAN

The place where korea meets its international friends

세계와 한국이 만나는 우리들만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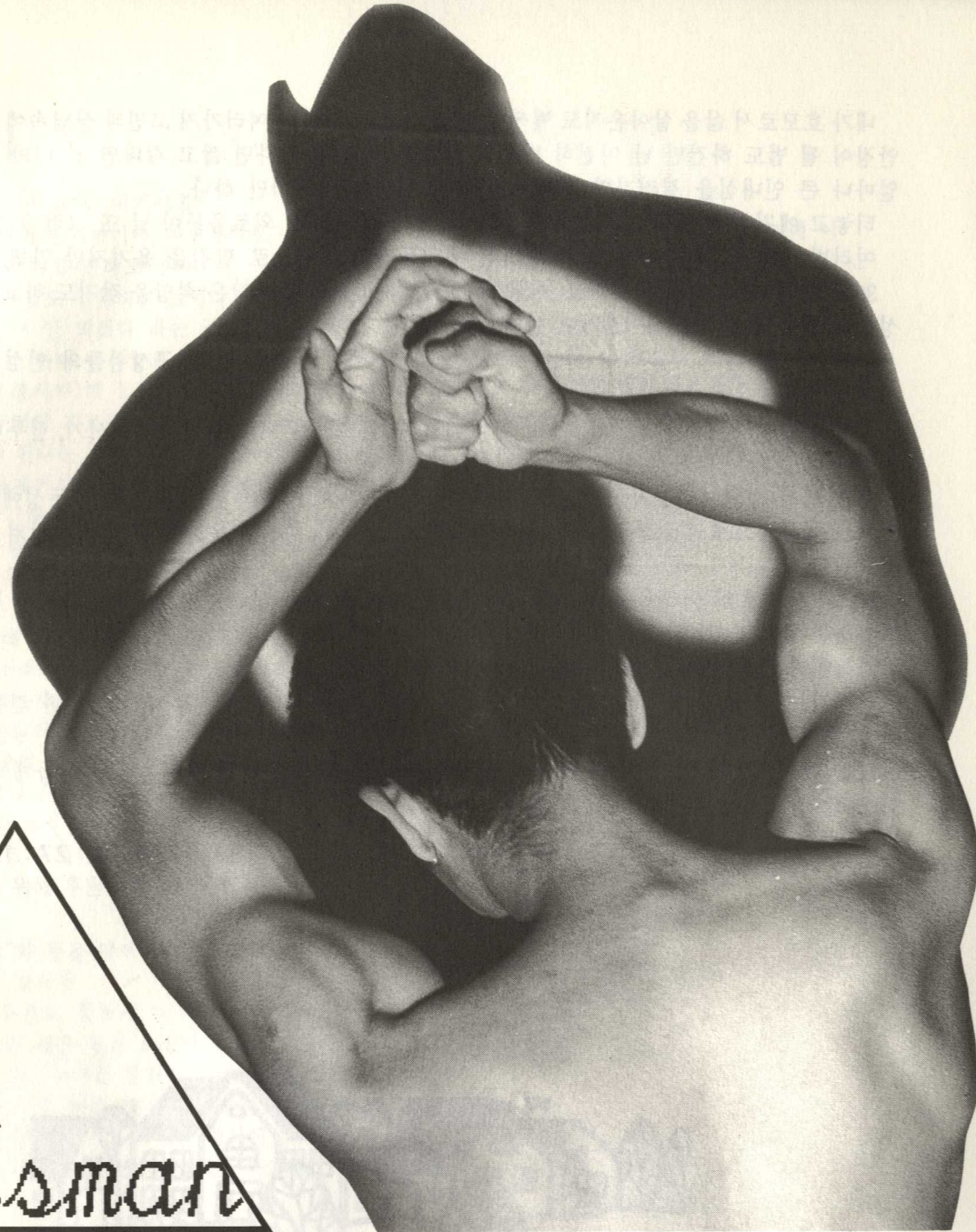
Tel.02-743-9579

同族の男性

기존의 그 모든 구조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망

The Desire to Escape from

Every Pre-existing Structure !





내가 호모로서 삶을 살아온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가지 고민과 상념속에 힘들어 했고, 이제는 안정이 될 법도 하건만 난 여전히 방향의 세계를 떠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나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인내심을 길러가며 살아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

터놓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즐길 수 없는 나의 현실...그런 외로움들이 날 또 그런 곳으로 몰고 가곤 한다. 여러번 갈등을 겪고 나면 흔히 알려진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발길을 옮기지만 가볍지만은 않다.

3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갖기도 하고, 때론 불만족스럽게 성욕을 간단히 해소할 수 있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인과 부딪혀야 하는 두려움도 있거니와, 비좁은 실내, 구성원들의 인성문제 때문에 유쾌하지만도 않다.

모두 동병상련의 친구요, 형님이요, 아버님일 수 있으려면 서로 불신, 무시, 시기, 질투하는 풍조가 그 좁은 공간의 공기를 혼탁하게 한다.

우린 다른 집단보다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열악한 동성에 문화속에선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동반자 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문화를 밝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때로는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지는 못 할망정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랑을 핑계삼아 사생활을 위협하는 소식도 간혹 들려 오곤 한다.

가뜩이나 소문 잘나는 이 세계!

언젠가는 이 생활 안 할 것인지? 그보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제일 중요한 믿음, 신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나는 게이로서의 삶이 더 이상 질병과 사생활 노출 등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어렵게 존재하지 않을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1994. 2. 5 13:27:13 서울에서 공지하



## 편집후기

1호를 접하고 나서 "바로 이거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가웠기에, 자원봉사로 나섰다. 우선 진석씨 혼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에 이 자릴 빌어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다.

초동회가, 여성분들도 참여하는 것이라 남성들이 또, 여성들이 꺼려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뒤, 이래선 발전이 없겠다 싶어 안 되겠다 라는 공통된 의견 수립 결과! 초동회의 남여 분리!였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만의 사무실, 아니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만 했다.

이 후명씨(자원 봉사자)께서 우선 당장 급하니까 본인의 집을 아지트로 쓰자 라고 제의 해오셨다. 그다음날 진석씨가 모든 우리의 자료를 철수시켰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뭉쳐 힘을 키워야 된다는 과제 아래,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친목도모-양성화-에이즈 예방, 퇴치-인권문제까지, 나중에 우리 후배들은 좀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고 결의했다. 그래서 우선 소식지를 발간해서 우리의 친구를 찾기로 함이 그 목적이다. 우리의 취지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원주에 사시는 김진호(35세)께서 10만원이라는 기부금을, 세일링 사장님께서 10만원의 후원금을, 저희들을 격려하는 분께서 2만원, 아낌없이 자신의 집과, 전화, 사서함을 내주신 이 후명씨, 그외 숨은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친구사이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일에도 힘들텐데 자원봉사로 나섰던 분들 고맙습니다.

2호는 광고에 실린 업주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10~15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셨습니다. 그 금액으로 인쇄비가 부족하여 기부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뜻있는 분들의 성원이 우리 친구사이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흡족합니다. 이 친구사이엔 결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결실-친구 사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는 매달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미에서, 후원자 & 자원 봉사자를 모십니다.

-사무실 마련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주시요.

-후원자

자격: "친구사이"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

회비: 매달 성심 성의껏.

(전화비, 우편료, 활동비 등 여러분께 쓰여짐)

후원자 특전: 모든 것은 신분 보장해 드립니다.

1. 친구사이를 본인이 받아 볼 수 있게 우송.

2. 미팅, 펜팔 코너에 참여-알선-연결 해 드립니다.

3. 친구사이 주최 각종 행사에 초대(등산, 여행, 영화의 밤 행사)

계좌번호: 국민은행 094-01-0245-154 친구사이앞

자원 봉사자

P.C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인쇄에 힘 하신 분.

그림, 삽화, 만화에 소질 있으신 분.

**연락처: 02-601-7942(YOU! 영원한 친구사이)**

(PM 8시~11시: 자원 봉사자 분들이 직장관계로 퇴근 후,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청소년의 고민 상담도 해 드리고 있음

\* 에이즈 상담 환영

\* 팩스를 통해 연락 주셨던 분

-아직 팩스가 준비 안되어 있으므로 연락 그만 해 주세요.(우편 이용 바람)

**주소: 우편번호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광고희망업소-그림, 사진, P.R문구 작성해서 매달 15일까지 마감.



# ALEXANDER



“알렉산더”와 함께라면,  
결코, 후회 할 일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 낙원상사 끝 천일식품 3층  
**Tel : 82-02-743-8264**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EL : 02-601-7942 친구사이(PM 8~11시)  
주소 :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우편번호 11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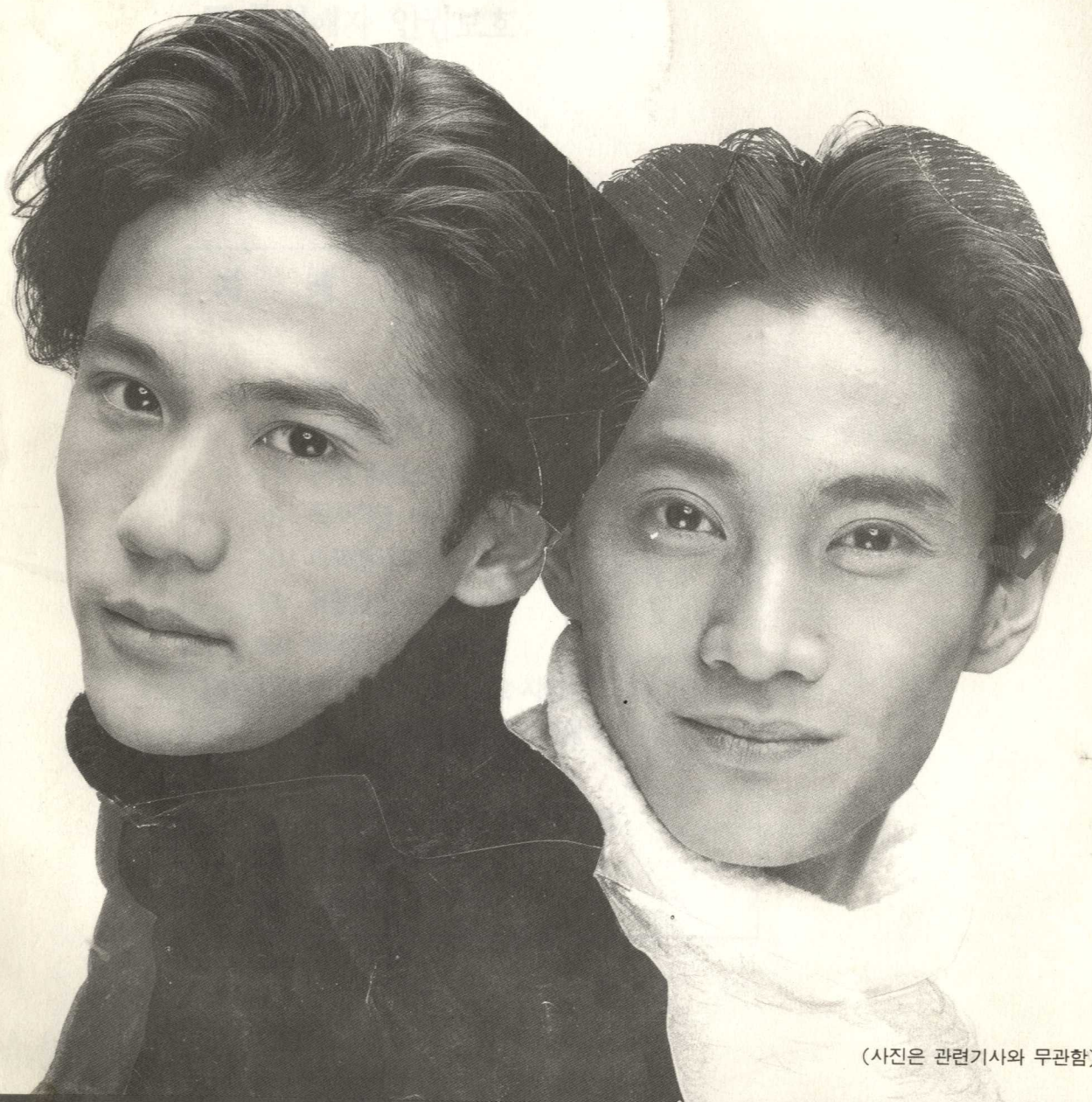
비매품

우리의 월간 소식지. 발행일 94년 3월(제2호)

# 친구사이

(구 : 초동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ll	9



(사진은 관련기사와 무관함)

프랑스 국영 TV “한국의 가려진 목소리”  
다큐멘터리에 친구사이가...

관련기사 p17에...